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Narcissists with Grandiosity and Vulnerability

Jin-Won Yang[†]

Department of Psychiatry
Asan Medical Center

Seok-Man Kwon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seeks to empirically identify the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narcissistic grandiosity and vulnerability using a measure that assesses a wide range of narcissism. In study I, 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PNI), which measures pathological narcissism, was translated into Korean and was validated. Study II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people with narcissistic grandiosity and narcissistic vulnerability. Grandiosity subscales showed positive correlation with positive affect, but showed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depression and negative affect. On the other hand, vulnerability subscales showed positive correlation with depression and negative affect but negative correlation with positive affect. Both narcissistic grandiosity and vulnerability showed positive correlation with trait anger. For further analysis, narcissists were divided into grandiose group and vulnerable group based on their relative levels of PNI 's grandiosity score and vulnerability score. The grandiose group showed more positive affect than the vulnerable group. The vulnerable group showed higher level of depression and negative affect.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trait anger score was observed between the vulnerable group and the grandiose group. The finding of this research suggests that emotional characteristics vary according to two factors of narcissism. The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are discussed.

Keywords: pathological narcissism, narcissistic grandiosity, narcissistic vulnerability, PNI, emotion

[†] Correspondence concerning this article should be addressed to Jin-won Yang, Department of Psychiatry Asan Medical Center, 88, Olympic-ro 43-gil, Songpa-gu, Seoul 05505, Korea.

Fax: 02-485-8381 E-mail: yyjin172@gmail.com

현대인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도태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간다. 이 과정 중에 과도하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자기애적인 특성을 보이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이들은 타인의 평가와 인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칭찬과 갈채를 받지 못하거나 좌절을 경험할 경우, 극단적인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 실제로 우울이나 분노와 같은 정서적 어려움으로 임상 장면을 찾는 사람들 중 자기애적 성격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

여러 임상 문헌들을 살펴보면 자기애에 대해 공통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두 가지 역기능적 주제를 볼 수 있는데, 바로 자기애적 웅대성(grandiosity)과 취약성(vulnerability)이다. 자기애적 웅대성과 취약성이라는 개념은 수 십년에 걸쳐 많은 학자들에 의해 언급되어 왔다(Cain, Pincus, & Ansell, 2008). Kohut 이후 많은 임상가 및 이론가들은 자기애자들의 여러 역기능적인 측면들을 기준으로 자기애적 웅대성과 취약성을 구별하기 위한 다양한 이름들을 만들어왔는데, 그 종류만 해도 50가지가 넘는다(Cain et al., 2008). 그 중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명칭은 Akhtar와 Thomson(1982)의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이다. 그들은 자기애의 자기개념, 대인관계, 사회적 적응, 윤리와 규범과 이상, 사랑과 성, 인지적 스타일의 여섯 가지 기능영역에서의 결함을 기준으로 자기애를 구분하였다. Ronningstam(2005)은 자존감 조절과 정서조절, 대인관계 양상을 기준으로 자기애를 오만한 자기애와 수줍은 자기애로 구분하였다. Gabbard(1998)는 부정적인 전이와 역전이에 근거해 자기애를 두 유형으로 나누었는데, 이는 각각 무감각형(oblivious) 자기애

와 과민형(hypervigilant) 자기애이다.

최근 자기애의 웅대하고 취약한 두 가지 역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Horowitz, 2009; Kernberg, 2009; Ronningstam, 2009; Russ, Shedler, Western, & Bradley, 2008). 많은 학자들은 자기애의 두 가지 유형에 다양하게 이름 붙이는 일을 끝내고 자기애의 이론과 치료에 대한 보다 통합적인 문헌이 축적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Cain et al., 2008). 다양한 명칭으로 언급되어 온 자기애의 웅대성과 취약성에 대한 특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기애적 웅대성은 자기 표상의 부정적 측면을 억압하고 특별한 권리를 지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과장된 자기 이미지, 무한한 힘, 우월, 완벽, 칭찬에 대한 환상과 관련된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착취적 행동, 공감부족, 강렬한 질투, 공격, 노출증 등으로 나타난다(Pincus & Lukowitsky, 2010). 자기애적 웅대성은 DSM-5에 제시되어 있는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주된 특징으로, DSM-III 이후 수정될 때마다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 한편, 자기애적 취약성의 특징은 여러 임상 문헌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무력감, 공허감, 낮은 자존감, 수치심 등을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특징을 지닌다. 자기애적 취약성이 두드러지는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수치스러운 정서와 부정적인 자기상을 의식하고 타인에게 보고한다. 자기애적 취약성의 또 다른 특징은 사회적 회피이다. 즉, 이상적인 자기표현이 불가능하거나 칭찬이 충족되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는 자기애적 위협을 다루기 위해,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는 방략을 사용한다. 또한 이런 특성을 지니는 사람들은 웅대한 환상을 지니면서도, 자신의 그러한 욕구와 야망에 강한 수치심을 느낀다(Akhtar, 2003;

Dickinson & Pincus, 2003; Ronningstam, 2005). 자기애적 취약성은 한 개인에게 지배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웅대한 상태와 번갈아가며 나타날 수도 있다고 기술된다(Ronningstam, 2009). 자기애적 응대성과 취약성에 대한 임상적 기술들은 여러 구조적 연구에서 자기애의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험적으로도 지지되어 왔다(Hendin & Cheek, 1997; Rathvon & Holmstrom, 1996; Wink, 1991).

그러나 많은 경험적 연구들에서 자기애적 응대성만을 측정하는 도구 또는 자기애적 취약성만을 측정하는 도구들이 사용되어왔다. 즉, 자기애적 응대성과 취약성 두 개념 모두를 포괄하는 척도는 부재했던 것이다. 국내 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온 척도인 NPI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는 자기애의 병리적인 특징 중 착취와 특권의식과 같은 웅대한 측면 혹은 비교적 건강한 측면에 제한된다고 알려져 있다(Carroll, Hoeningmann-Stovall, & Whitehead III, 1996; Emmons, 1984, 1987; Ervin, & Hodge, 1992; Hickman, Watson, & Morris, 1996; Jackson, Rhodewalt & Morf, 1995; Pincus et al., 2009; Watson, Varnell, & Morris, 1999-2000). NPI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신경증 및 우울과 부적 상관을 보이고 성취동기 및 자존감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Brown, Budzek, & Tamborski, 2009; Lukowitsky, Robetts, Lehner, Pincus, & Conroy, 2007; Rhodewalt & Morf, 1995; Watson, Little, Sawrie, & Biderman, 1992). 한편 Hendin과 Cheek(1997)은 NPI에 대응하는 척도로 HSNS (Hypersensitive Narcissism Scale)를 개발하였는데, 이는 자기애적 취약성을 측정한다. 이렇듯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용되어 온 자기애 측정도구는 자기애의 웅대한 측면만을 측정하거나 취약한 측면만을 측정한다. 이는 자기애가 내

포하는 내용이 연구마다 달리 반영될 수 있으며 임상장면에서 관찰되는 자기애의 다차원적 속성이 함께 연구되기 어렵다는 문제를 낳는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자기애에 대한 임상적 관찰과 경험적 연구 결과들의 통합이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최근의 많은 연구자들은 자기애의 다차원적 속성을 모두 다룰 것을 제안하고 있다(Miller, Widiger, & Campbell, 2010; Pincus & Lukowitsky, 2010; Ronningstam, 2009). Pincus 등(2009)은 자기애적 응대성과 취약성을 모두 포함하는 병리적 자기애를 측정하는 도구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병리적 자기애 척도인 PNI (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를 개발했다.

Pincus 등(2009)은 자기애적 응대성과 취약성을 모두 포함하는 척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병리적 자기애의 구성개념을 확인하기 위해 이론적 문헌들과 경험적 논문들을 조사하였다. 또한 실제 자기애성 성격 장애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는 심리치료사들로부터 치료 회기 자료들을 제공받아 살펴보았다. 이러한 포괄적인 리뷰 과정을 통해 다음 7가지 자기애의 구성요소가 확인되었다: 변동하는 자존감, 착취, 특권분노, 웅대한 환상, 평가절하, 자기 숨김, 자기희생-자기고양. PNI는 위의 7요인으로 구성되고, 이 7개의 요인은 이론적으로 상위 2개 요인인 응대성과 취약성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즉, 착취, 웅대한 환상, 자기희생-자기고양은 자기애적 응대성으로 분류되며, 변동하는 자존감, 평가절하, 특권분노, 자기애적 사회적 회피는 자기애적 취약성으로 분류된다. PNI의 자기애적 응대성은 부적응적인 자기 고양의 특성을 반영하며, 오만함, 지배적인 태도로 나타난다. 자기애적 취약성은 자존감, 자기,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반영하며, 분노, 공격성,

무기력함, 공허함, 낮은 자존감, 수치심, 사회적 회피, 자살 시도 등으로 표현된다(Akhtar, 2003; Dickinson & Pincus, 2003; Kohut & Wolf, 1978; Pincus et al., 2009; Ronningstam, 2005). PNI가 개발된 이후 자기애적 웅대성과 취약성에 따른 차별적 특성을 살펴본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Besser & Zeigler-Hill, 2010; Ellison, Levy, Cain, & Pincus, 2009; Miller et al., 2010; Pincus et al., 2009; Tritt, Ryder, Ring, & Pincus, 2010; Zeigler-Hill, Green, Arnau, Sisemore, & Meyers, 2011). 예를 들어, PNI와 성격기질과의 관련성을 본 연구에서 자기애적 웅대성은 신경증, 우호성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외향성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자기애적 취약성은 우호성과 부적 상관을 보였지만, 신경증과는 정적 상관을 보이며 외향성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Miller et al., 2010).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에서 웅대성이 강한 자기애자들을 외현적 자기애, 취약성이 강한 자기애자들을 내현적 자기애라 명명하고 있다(Chung, 2001; Kim, 2008; Won, 2006). 그러나 Pincus와 Lukowitsky(2010)는 외현적, 내현적이라는 단어가 각각 웅대성과 취약성을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자기애자들 중 외현적 취약성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현적 웅대성을 보이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과민성 자기애 척도에서 측정하는 자기애의 특성이나 Wink(1992)가 말한 내현적 자기애는 자기애적 취약성을 잘 반영하나, 자기애적 취약성을 내현적 자기애라 명명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뿐이라고 하였다(Pincus & Lukowitsky,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를 언급할 때 해당 연구에서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라는 용어로 사용하였을 경우 그 용어 그대로 언급하지만, 본 연구의 내

용에서는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PNI의 원 저자인 Pincus의 제안에 따라 자기애적 웅대성과 자기애적 취약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한편 분노나 우울과 같은 정서적 경험은 자기애적 특성을 지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성이다. 자기애와 분노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높은 수준의 자기애와 분노 및 공격성의 관련성이 지지되어 왔다. Raskin과 Hall(1979)는 자기애적 성격 척도(NPI)와 공격성이 높은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자기애가 높을수록 언어적으로 표현되는 분노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cCann & Biaggio, 1989).

우울과 자기애의 관련성 또한 많은 임상가들에 의해 보고되어 왔다. Akhtar와 Thomson(1982)는 임상 장면에서 내현적 자기애자의 성향을 살펴본 결과,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진 집단이 비판에 대해 민감성이 높고 비난을 회피하며 이로 인해 위축되고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제안하였다. Lee, Seo와 Lee(2007)는 자기애 하위 유형에서 우울증상의 양상을 비교한 결과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이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에 비해 더 우울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또 다른 많은 경험적 연구들에서 자기애와 우울간의 관계를 입증하는데 실패하였다(Corruble, Ginestet, & Guelfi, 1996; Sedikides, Rudich, Gregg, Kumashiro, & Rusbult, 2004). 이는 사용된 자기애 척도에 취약한 측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자기애와 우울의 관련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울은 자기애의 취약성과 관련이 깊은 것을 알 수 있다(Robinson & Dupont, 1992; Waston, Tylor & Morris, 1987; Wink, 1992). 자기애는 그 자체의 취약성으로 인해

과민하며 우울이나 불안과 관련이 깊다고 한다(Han, 1999; Rhodewalt & Morf, 1995). 이에 자기에의 웅대성 뿐 아니라 취약성까지 고루 측정하는 척도를 사용하여 자기에와 우울 간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자기에의 웅대성과 취약성 두 요인을 고루 포괄하고 있는 척도는 부재했다. 이는 자기에와 관련된 경험적 연구들 간 혹은 경험적 연구와 임상적 관찰 간의 차이를 낳고 자기에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국내의 NPDS(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는 유일하게 자기에적 웅대성과 취약성의 특징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척도이긴 하지만, 웅대성과 취약성이라는 개별 요인을 지니지는 않기 때문에 두 개념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에적 웅대성과 취약성의 다차원적 요인을 모두 포함하는 자기에 척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통합된 척도를 기반으로 자기에적 웅대성과 취약성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하는 일은 자기에 자들을 이해하고 치료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울이나 분노와 같은 정서적 특성은 자기에자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성으로 알려져 있으므로(Kernberg 1975; Kohut, 1971), 자기에적 웅대성과 취약성에 따라 정서적 특성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나타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연구 I에서는 Pincus 등(2009)이 개발한 PNI를 번안 및 타당화 하여 병리적 자기에의 다차원적 속성을 포함하는 도구를 마련하고, 연구 II에서는 병리적 자기에의 웅대성과 취약성에 따라 나타나는 정서적 특성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상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아울

러 자기에 성향이 높은 사람들 중 웅대성과 취약성 중 어느 한 요인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경우가 있을 것을 가정하여 상대적으로 자기에적 웅대성이 강한 집단을 웅대성 집단으로 구분하고,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강한 집단을 취약성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 정서적 특성의 점수를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자기에적 웅대성은 긍정정서, 분노와 관련성이 높고, 자기에적 취약성은 우울 및 부정정서, 분노와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연구 I. 병리적 자기에 척도의 번안 및 타당화

방 법

참가자

서울에 소재하는 한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수업을 듣는 학부생 327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고, 병리적 자기에 척도에 한해서 230명에게 추가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간단한 소개와 함께 수업 시간 중에 실시되었으며, 질문이 있을 때 답변할 수 있도록 연구자가 실시과정 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 설문지의 응답에는 약 20분이 소요되었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21.08세(표준편차 2.56, 범위 17~33세)였으며 이 중 남자가 313명, 여자가 244명이었다.

측정도구

병리적 자기에 척도(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PNI)

병리적 자기에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자기보고형 질문지로, Pincus 등(2009)이 개발하

였다. 총 52문항으로 6점 척도 상에서 0점과 5점 사이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는 총 문항의 평균을 사용한다. Pincus 등(2009)은 병리적 자기에 척도가 ‘변동하는 자존감(Contingent self-esteem; CSE)’, ‘착취(Exploitativeness; EXP)’, ‘웅대한 환상(Grandiose Fantasy; GF)’, ‘자기 숨김(Hiding the Self; HS)’, ‘자기 희생-자기 고양(Self-Sacrificing-Self-Enhancement; SSSE)’의 7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하였다. 같은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요인별로는 .78~.93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전체점수에 대해서는 .9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 결과 원 척도의 ‘자기숨김’ 요인이 제외된 6개의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최종 선별된 35문항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35문항 PNI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요인별로 .85~.92로 나타났고, 전체점수에 대해서는 .92로 나타났다.

자기애적 성격 검사지(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

Raskin과 Hall(1979)이 DSM-III의 자기애성 성격장애 진단기준에 근거하여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개발한 자기에 측정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Raskin과 Terry(1988)가 주성분 분석을 거쳐 기존의 54문항을 40문항으로 단축한 것으로, 국내에서 Han(1999)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Raskin과 Terry(1988)는 이 검사에서 권위, 과시성, 우월성, 허영심, 착취성, 특권의식, 자기충분성의 7개의 주성분을 확인하였으며 내적합치도를 .83으로 보고하였다. Han(1999)은 내적 합치도가 .85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점수범위는 0-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애적 성격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는 .87로 나타났다.

과민성 자기에 척도(Hypersensitive Narcissism Scale, HSNS)

Murray(1938)가 자기애적인 사람들에게서 한편으로는 자신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과대망상의 경향이 있음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평가와 비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음을 관찰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자기에 검사(Murray's Narcissism Scale)에 기초한다. Hedin과 Cheek(1997)은 20개 문항으로 된 Murray의 자기에 검사 중에서 내현적 자기에를 측정하는 MMPI 척도들과 높은 상관을 보인 10개 문항을 선별하여 과민성 자기에척도(HSNS)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Chung(200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이며 5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 척도(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 NPDS)

Hwang(1995)이 DSM-IV(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진단준거를 참고하여 개발한 성격장애 자기보고 척도 가운데 자기애적 성격장애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다른 성격장애와 공유하고 있는 특성을 측정하는 공유척도와, 다른 성격장애와의 공유특성은 모두 제외하고 자기애적 성격장애에만 해당되는 특성으로 구성된 비공유 척도가 있는데, 공유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이며 각 문항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4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평가를 위해 7점 척도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점수 범위는 18점에서 126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애성 성격장애에 가까운 것을

의미한다. 내적 합치도는 Hwang(1995)의 연구에서는 .68로 보고되었고, Han(1999)의 7점 척도 방식에서는 .88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87로 나타났다.

수치심 죄책감 경험 질문지(Adapted Shame and Guilt Scale, ASGS)

Gioiella(1979)가 개발한 수치심, 죄책감 질문지를 Hobitzelle(1987)가 수정 보완한 수치심 및 죄책감 경험 질문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Nam(200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부끄럽다’ 등의 제시된 형용사에 대해 자신이 이러한 감정을 평소에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 5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수치심 문항 15개, 죄책감 문항 15개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에 속하는 15문항만을 사용하였으며, 15문항 간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88로 나타났다.

공격성 질문지(Aggression Questionnaire 한국판, AQ-K)

Buss와 Perry(1992)가 개발한 것으로 Seo와 Kwon(2002)이 번안하여 한국판으로 개발하였다. 전체문항의 구성은 신체적 공격행동(9문항), 언어적 공격행동(5문항), 분노감(5문항), 적대감(8문항)으로 구성된 4개의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특질이 강한 것을 나타낸다. Seo와 Kwon(2002)이 보고한 내적 합치도 계수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8로 나타났다.

Big 5 측정 질문지(Interpersonal Personality Item Pool, IPIP)

Goldberg(1999)의 IPIP(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를 Yoo, Lee와 Ashton(200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외향성, 우호성, 성실성, 신경증적 성향, 경험에 대한 개방성의 5가지 각 요인별로 10문항씩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척도 중 외향성 척도와 신경증적 성향 척도만 사용하였다. 내적 합치도 계수는 외향성이 .85, 신경증적 성향이 .89로 나타났다.

Rosenberg 자존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RSES)

Rosenberg(1965)가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전반적인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보고형 질문지로 총 10문항에 걸쳐 5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Lee와 Won(1995)이 보고한 내적 합치도 계수는 .89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85로 나타났다.

절차

1단계: 문항번안

PNI의 주 개발자인 Aaron L. Pincus로부터 한국어 번안 타당화 허가(February 3, 2011)를 받아 본 연구자가 문항내용을 일차적으로 번역하였다. 이후 임상 및 상담심리학 전공의 박사과정 대학원생 2명의 검토를 거쳤으며, 임상심리학 전공 교수 1명의 최종 검토를 통해 문항 내용이 구성개념을 잘 대표하고 한국의 문화가 반영되며 한국어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되었다. 이후 영어와 한국어에 능숙한 임상 및 상담심리학 전공의 석사과정 대학원생 2명에게 다시 영문으로 역번역하게 하였다. 이 결과와 원 문항을 비교하는 과정 중에 주 개발자인 Aron L. Pincus와 상의를 하

였고, 그의 조언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문항들을 결정하였다.

2단계: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확인

번안된 PNI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참여자 557명을 표본 1과 표본 2로 나누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 1은 총 257명(남 153명, 여 10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었다. 표본 1의 평균연령은 21.48세(표준편차 3.00, 범위 17~33세)였다. 표본 2는 총 300명(남 161명, 여 13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었다. 표본 2의 평균연령은 20.70세(표준편차 2.17, 범위 17~29세)였다.

3단계: 상관분석을 통한 타당도 확인

자기애를 측정하는 다른 척도들 및 자기애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가정된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는 척도들과 PNI의 상관분석을 통하여 PNI의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통계적 분석

통계적 분석은 SPSS(version 18.0)를 사용하여 기술통계치를 구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및 상관분석을 하였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AMOS(version 18.0)를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축 요인 추출(principal axis factoring) 방식으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요인 간 상관을 고려하여 사각회전 방식(Promax, $\kappa=4$)을 사용하였다. 요인 부하량이 .30이상 이어야 좋은 문항으로 간주하였으며, 한 문항이 다른 요인에서도 .30이상의 요

인 부하량을 갖거나 요인 부하량의 차이가 .10 미만일 경우에는 교차 부하(cross loading)되었다고 판단하여 해당문항은 제거하였다. 또한 적어도 한 요인에 속하는 문항 수가 3~4개 이상이어야 안정적인 요인으로 간주하였다(Costello & Osborne, 2005).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다.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omparative Fit Index(CFI)와 Tucker-Lewis Index(TLI), 그리고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이다. 일반적으로 CFI와 TLI는 .90 이상이면 합당한 모형으로 간주하며, RMSEA는 .05보다 작으면 좋은 모형, .08보다 작으면 합당한 모형, .10보다 크면 나쁜 모형으로 본다(Hong, 2000).

척도의 신뢰도 확인을 위하여 내적 합치도 계수로 Cronbach's α 를 사용하였다. 또한 표본 1의 일부(N=185)에 대하여 4주 간격으로 병리적 자기애 척도(PNI)를 재실시하여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70 이상이면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결과 및 논의

탐색적 요인분석

병리적 자기애 척도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표본 1(N=257)에서 52개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KMO (Kaiser-Meyer-Olkin) 적합성 지수는 .89로 문항 간 상관성이 양호한 것으로 보이며(Kaiser, 1974), Bartlett 검증 결과, 요인분석을 하기에 매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chi^2(595, N=257)=$

4449.16, $p < .001$.

적절한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해 주축 요인 추출(principal axis factoring) 방식으로 고유치가 1.0이상인 요인을 추출해 본 결과 요인의 수가 1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출된 12개 요인의 고유치는 다음과 같았다: 12.82, 5.05, 2.37, 2.12, 1.92, 1.85, 1.50, 1.41, 1.22, 1.18, 1.17, 1.11. Pincus 등(2009)의 이론적 가정과 Scree 도표를 참고하였을 때 6~8개의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요인의 수를 8부터 6까지 차례로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수를 8개로 지정한 경우 2개의 문항이 한 요인으로 묶이는 현상이 나타났다. 2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요인은 불안정한 요인으로 여겨지므로 요인의 수를 7개로 지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서로 다른 특성으로 보이는 문항들이 한 요인으로 묶였는데, 이는 해석을 어렵게 한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요인의 수를 6개로 지정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 비슷한 특성을 지닌다고 판단되는 문항들끼리 6요인으로 묶였다. 이는 해석을 용이하게 하므로 최종 요인 수는 6요인으로 결정하였다. 6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총 분산은 43.89%로 나타났다. 요인에 속한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30 미만인 문항과 교차 부하값(cross loading)을 보이는 문항을 제거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2, 3, 6, 7, 9, 13, 18, 22, 23, 28, 32, 38, 41, 44, 46, 50, 51번 문항이 제거되어 35개 문항이 결정되었다. 최종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문항내용과 함께 Table 1에 제시하였다.

요인 1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나 자신에 대해 좋은 감정을 느끼기가 어렵다(36).’ 등의 10문항으로, 타인으로부터의 칭찬과 인정이 부재할 경우 자

존감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므로 ‘변동하는 자존감’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는 ‘나는 나의 성취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공상을 자주 한다(45).’ 등의 7문항으로, 성공하고 인정받는 공상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응대한 환상’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3은 ‘다른 사람들이 해주었으면 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종종 사람들을 피하곤 한다(27).’ 등의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타인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은 피하고, 타인으로부터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자신이나 자신의 욕구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평가절하’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4는 ‘나는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믿게 할 수 있다(10).’ 등의 4문항으로, 대인관계에서 타인을 조종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착취’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5는 ‘나는 비판을 받을 때 화가 난다(29).’ 등의 5문항으로, 자신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화가 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므로 ‘특권분노’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6은 ‘나는 희생함으로써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노력한다(39).’ 등의 4문항으로, 자신의 응대함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자기희생-자기고양’이라고 명명하였다.

원 척도의 자기 숨김 요인에 속한 문항들이 본 연구에서는 모두 제거되었는데 그 이유를 추정해 볼 때, PNI가 개발된 미국과 본 연구가 진행된 한국 간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원 척도의 자기 숨김 요인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 청하기를 싫어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언가 결핍된 의존적인 사

Table 1
Factor Loadings from EFA of PNI with 35 Items

	PNI items					
	1	2	3	4	5	6
Component 1: Contingent Self-Esteem						
36.	.857	-.117	.053	-.035	-.120	-.021
41.	.788	-.071	.064	-.071	-.014	.073
16.	.764	-.032	.096	.029	-.013	-.088
8.	.738	-.044	-.021	-.154	-.029	-.046
30.	.675	-.063	.159	.052	.008	-.008
40.	.587	-.134	-.157	.067	.236	.021
48.	.581	-.134	-.216	.051	-.027	.063
37.	.529	-.012	.061	.124	.096	.148
5.	.396	-.146	.298	-.155	-.106	-.014
19.	.364	.191	.022	.094	.106	.008
Component 2: Grandiose Fantasy						
45.	-.044	.867	-.006	-.060	-.025	-.007
14.	-.040	.823	.044	-.023	-.082	-.112
49.	.048	.696	-.134	.056	-.112	-.021
26.	-.137	.695	.095	-.110	.115	.026
31.	.047	.682	.082	-.040	-.087	.026
42.	-.108	.643	.039	.002	.061	.177
1.	.138	.609	-.032	.068	-.064	.040
Component 3: Devaluing						
27.	-.023	-.012	.868	.018	-.038	.017
34.	.110	-.080	.828	.012	-.184	.079
17.	.018	.042	.763	-.063	-.001	-.126
24.	-.046	-.002	.529	.032	-.079	.101
21.	.041	.039	.482	-.062	.194	.081
Component 4: Exploitativeness						
10.	-.070	.024	.043	.768	-.109	-.001
15.	.053	.097	-.011	.759	-.042	-.172
4.	-.075	-.101	-.053	.623	.028	.122
35.	-.036	-.171	-.040	.483	-.068	.287
Component 5: Entitlement Rage						
29.	-.047	.133	-.081	-.135	.861	-.023
52.	-.020	-.054	-.026	-.064	.816	.034
12.	.220	.084	.020	.141	.471	-.087
11.	.098	.110	.232	.177	.332	-.142
20.	-.085	.075	.242	.086	.318	.065
Component 6: Self-Sacrificing Self-Enhancement						
39.	.065	-.023	.003	.082	-.145	.744
25.	-.129	-.043	.134	.012	.168	.667
43.	.039	.121	.008	.063	-.011	.652
33.	.301	.182	-.129	-.153	-.008	.391

Note. EFA=exploratory factor analysis; PNI = 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람으로 여길까봐 두려워서 종종 나의 욕구를 숨기곤 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것을 참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내가 나약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등과 같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타인에게 공개하면서 의존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꺼리는 것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Lee(1997)가 제안한 ‘도움 청하기(help-seeking)’ 라는 개념과 상당 부분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데, 도움을 청하는 것은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도움을 주는 사람보다 능력이 떨어짐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는 타인에게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Lee, 2002). ‘도움 청하기’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특히 동양의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도움을 청하는 일은 본인의 체면이 실추되는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도움 청하기를 자제한다는 경향이 있다고 제안된다(Markus, Mullaly, & Kitayama, 1997; Taylor, Sherman, & Kim, 2005). 이를 토대로 볼 때 자기애를 측정하는 데 있어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꺼리는 것과 관련된 자기 숨김 요인이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개인주의 문화권에 비해 크게 민감하거나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개인주의 문화권인 미국에서 개발된 PNI의 자기 숨김 문항들이 본 연구에서 모두 제거된 데에는 상이 문화적 차이가 반영되었을 수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AMOS로 표본 2(N=300)에 대해서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을 만들어 검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

과 확인된 병리적 자기에 척도의 6요인은 이론적으로 2개의 상위 요인으로 나뉠 수 있다(Pincus et al., 2009). 착취, 웅대한 환상, 자기희생-자기고양 요인은 자기애적 응대성으로 분류할 수 있고, 변동하는 자존감, 평가절하, 특권분노 요인은 자기애적 취약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Wright et al., 2010). Wright 등(2010)은 PNI의 요인구조에 대한 연구에서 일차 요인구조와 응대성 및 취약성 두 요인을 상위 요인으로 갖는 위계적 2차 요인구조 모두 적합함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요인으로 구성된 1차 요인구조 모형과 6요인의 상위 2요인으로 구성된 위계적 2차 요인구조 모형 모두를 검증하였다. 한편 원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문항 내용이 유사한 문항들의 오차항 간 상관을 허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문항 내용과 형태의 유사성에 따라 오차항을 연결 하였고, 오차항 간 상관이 유의하지 않은 연결은 제거하였다. 최종적으로 남은 오차항 연결 문항들은 12개로 다음과 같다: 5번과 40번, 8번과 16번, 11번과 37번, 14번과 45번, 17번과 27번, 17번과 34번, 19번과 48번, 27번과 34번, 29번과 52번, 30번과 48번, 31번과 45번, 36번과 40번. 상관된 측정오차가 설명되지 않을 때 그 결과로서 추정치가 편향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Biddle & Marlin, 1987; Bollen, 1989). 한편 방법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론에 근거하지 않고, 단지 통계적으로 오차 상관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비판해왔다(Cortina, 2002). Pincus 등(2009)의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문항 내용을 공유한다고 생각되는 문항들 간 유사성에 근거해 측정 오차 상관을 설정한 것은 위의 문제들을 다루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분석 결과 6요인으로 구성된 1차 요인구조

Table 2
Goodness of Fit Index of the Model

Model	CFI	TLI	RMSEA
6 factors first order model	.913	.902	.051
2 factors second order model	.912	.902	.051

Note. CFI = Comparative Fit Index; TLI = Tucker-Lewis Index; RMSEA =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FI=.913, TLI=.902, RMSEA=.051(90% CI: .045~.056)로 모형이 적합함을 보여주었다. 위계적 2차 요인구조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FI=.912, TLI=.902, RMSEA=.05(90% CI: .045~.056)로서 6개의 1차 요인과 2개의 2차 요인으로 구성된 위계적 요인구조 역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병리적 자기에 척도의 1차 모형과 2차 모형 모두 측정문항들과 그에 해당되는 잠재요

인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준화된 계수 추정치들이 모두 유의미하였다(1차모형의 범위=.45~.80, 2차모형의 범위=.46~.80). 2차 모형의 경우 두 개의 2차 요인과 1차 요인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준화된 계수 추정치들의 범위는 .20~.94로 나타났다. PNI의 위계적 요인구조를 표준화된 계수 추정치와 함께 Figure 1로 제시하였으며, 각 요인 간 상관을 Table 3에 제시하였다.

병리적 자기에 척도의 신뢰도

병리적 자기에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α 를 계산하였으며, 표본 1의 참가자 중 185명에 대해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병리적 자기에 척도 전체문항의 Cronbach's α 는 .92로 적절한 수준의 내적 합치도를 나타냈으며, 병리적 자기에 척도의 두 하위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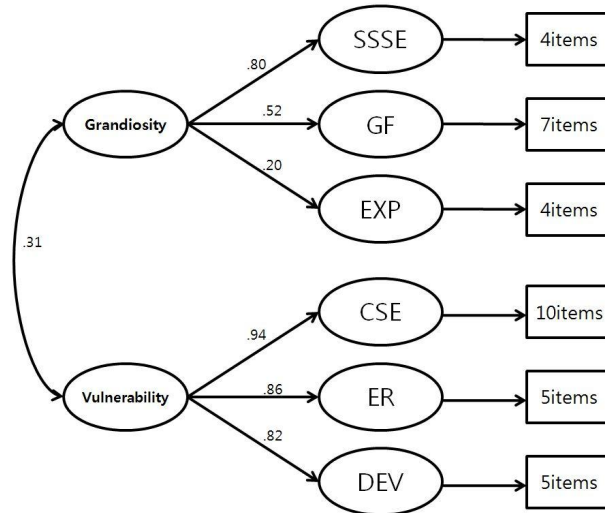


Figure 1.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 of the PNI; SSSE = Self-Sacrificing Self-Enhancement; GF = Grandiose Fantasy; EXP = Exploitativeness; CSE = Contingent Self-Esteem; ER = Entitlement Rage; DEV = Devaluing

Table 3
PNI Scale Intercorrelations (N = 300)

	1	2	3	4	5	6	Grandiosity
1. CSE							
2. GF	.36**						
3. DEV	.58**	.14**					
4. EXP	.04**	.29**	-.09**				
5. ER	.62**	.32**	-.48**	.06			
6. SSSE	.49**	.33**	.32**	.18**	.34**		
Grandiosity	.43**	.86**	.18**	.61**	.35**	.65**	
vulnerability	.91**	.34**	.78**	.01	.79**	.48**	.40**

Note. CSE = Contingent Self-Esteem; GF = Grandiose Fantasy; DEV = Devaluing; EXP = Exploitativeness; ER = Entitlement Rage; SSSE = Self-Sacrificing Self-Enhancement.

** $p < .01$.

인 응대성과 취약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Cronbach's α 역시 각각 .85와 .92로 적절한 수준을 보였다.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의 경우, 전체점수는 .83, 취약성은 .81, 응대성은 .84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별로 살펴볼 때, 변동하는 자존감은 .81, 응대한 환상은 .77, 평가절하는 .83, 착취는 .75, 특권분노는 .76, 자기희생-자기고양은 .68로 나타났다. 따라서 병리적 자기에 척도는 시간에 걸쳐 비교적 안정적인 자기애적 특성을 측정하는 신뢰할 만한 도구라고 여겨진다.

병리적 자기에 척도와 다른 척도의 관계

병리적 자기에 척도와 기존의 다른 자기에 척도들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병리적 자기에 척도(PNI)와 자기애적 성격 척도(NPI), 과민성 자기에 척도(HSNS), 자기애적 성격장애 척도(NPDS)와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였고 그

Table 4
Correlations among Narcissism Measures

	NPI	HSNS	NPDS
PNI			
Total	.30**	.47**	.60**
Grandiosity	.56**	.23**	.45**
Vulnerability	.05	.51**	.56*

Note. PNI = 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NPI =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HSNS = Hypersensitive Narcissistic Scale; NPDS =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

* $p < .05$. ** $p < .01$.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PNI 전체점수는 NPI($r=.30, p<.01$), HSNS($r=.47, p<.01$), NPDS ($r=.60, p<.01$) 모두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PNI의 두 하위 요인인 응대성 및 취약성과 다른 자기에 척도와의 상관을 살펴보면, 자기에의 응대한 측면을 주로

측정하는 척도인 NPI는 PNI의 웅대성과 강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나($r=.56, p<.01$), 취약성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r=.05, ns$). 자기애의 취약한 측면을 주로 측정하는 척도인 HSNS는 PNI의 취약성과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r=.51, p<.01$), PNI의 웅대성과도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r=.23, p<.01$). 자기애의 웅대한 측면과 취약한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척도인 NPDS는 PNI의 웅대성($r=.45, p<.01$)과 취약성($r=.56, p<.01$) 모두와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PNI가 자기애적 특성을 잘 측정하는 척도이며 PNI의 하위요인인 웅대성과 취약성은 각각 그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기애와 관련 있다고 알려진 여러 심리적 특성들과 병리적 자기애 척도(PNI)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고, PNI가 정상적 자기애에 가까운 자기애적 성격을 측정한다고 알려져 있는 자기애적 성격 척도(NPI)와 구별되는 척도인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심리적 특성들과 NPI와의 상관관계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PNI

총점은 수치심($r=.22, p<.01$), 신경증($r=.38, p<.01$), 공격성($r=.31, p<.01$)과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PNI의 하위요인인 웅대성 및 취약성과 여러 심리적 특성들과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 PNI의 웅대성은 외향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34, p<.01$). PNI의 취약성은 수치심($r=.40, p<.01$), 신경증($r=.50, p<.01$), 공격성($r=.35, p<.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자존감($r=-.39, p<.01$)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 결과에서 PNI의 하위 요인인 웅대성과 취약성 요인이 각각 관련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특성들과의 관련성이 차별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어, PNI가 자기애의 다차원적 속성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도구임을 보여준다. 한편, NPI는 PNI 총점과 대조적으로 수치심($r=-.47, p<.01$), 신경증($r=-.20, p<.01$)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외향성($r=.60, p<.01$), 자존감($r=.28, p<.01$)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PNI는 NPI와 구별되는 척도로서 부적응적인 심리상태와 행동을 초래할 수 있는 자기애적 특성을 측정하는 척도임을 시사한다.

Table 5
Correlations of the PNI and NPI with Other Psychological Characteristic Variables

	ASGS (Shame)	IPIP (Extraversion)	IPIP (Neuroticism)	RSES (Self-esteem)	AQ-K (Aggression)
PNI					
Total	+.22**	+.08 [^]	+.38**	-.18**	.31**
Grandiosity	-.12* [^]	+.34**	+.02 [^]	+.12* [^]	.15* [^]
Vulnerability	+.40**	-.11* [^]	+.50**	-.39**	.35**
NPI	-.47**	+.60**	-.20**	+.28**	.11* [^]

Note. PNI = 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ASGS = Adapted Shame and Guilt Scale; IPIP = Interpersonal Personality Item Pool; RSES = Rosenberg Self-Esteem Scale; AQ-K = Aggression Questionnaire Korean version.

* $p < .05$. ** $p < .01$.

연구 II. 병리적 자기에의 정서적 특성

연구 II는 연구 I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병리적 자기에 척도의 두 요인인 응대성과 취약성에 따라 정서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자기에자들의 강렬한 정서경험과 정서조절의 어려움은 임상적으로 중요한 특성이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자기에는 분노, 공격성과 관련된다 (Rhodewalt & Morf, 1998; Smalley & Stake, 1996; Stuck & Sporer, 2002; Wink, 1991). 또한 자기에 자들에 대한 임상적 관찰에 따르면, 이들은 우울과 관련이 깊은 한편 자기에와 우울은 관련이 없거나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들도 있다(Akhtar & Thomson, 1982; Corruble et al., 1996; Kernberg, 1975; Kohut, 1977; Sedikides et al., 2004). 이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자기에의 응대한 측면만을 주로 측정하는 척도인 NPI를 사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Pincus 등(2009)에 의해 개발된 병리적 자기에 척도(PNI)를 사용하여 자기에와 정서적 기질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PNI의 응대성은 경조증 기질과 상관이 높은 반면, 취약성은 우울, 불안기질과 상관이 높았다(Tritt et al., 2010).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자기에의 응대성과 취약성은 각기 밀접히 관련되는 정서적 특성이 서로 다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진행되었다. 특히 응대성과 취약성 모두 분노와 관련되는 한편 응대성은 긍정정서와, 취약성은 부정정서 및 우울과 더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먼저 상관분석을 통해 PNI의 응대성 및 취약성과 여러 정서적 특성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PNI 점수가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인 내의 응대성과 취약성의 상대적인 수준 차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집단 간 정서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PNI가 개발된 이후 응대성과 취약성에 따른 차별적 특성을 상관분석을 통해 살펴본 연구들은 있지만(Besser & Zeigler-Hill, 2010; Ellison et al., 2009; Miller et al., 2010; Pincus et al., 2009; Tritt et al., 2010; Zeigler-Hill et al., 2011), 집단을 구분한 연구는 없다. 자기에자들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응대성과 취약성의 상대적 수준에 따른 것이라는 Pincus 등(2010)의 제안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집단을 구분하여 각 집단 간 정서의 점수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방 법

참가자

연구 I의 참가자 중 전체설문지를 작성한 참가자 32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20.66세(표준편차 2.12, 범위 17~29세)였으며, 이 중 남자가 179명, 여자가 148명이었다.

측정도구

병리적 자기에 척도(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PNI)

연구 I에 사용된 척도와 동일 함.

한국판 Beck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우울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그리고 생리

적 영역을 포괄한 우울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Beck, Ward, Mendelson, Mock와 Erbaugh(1961)가 개발한 21문항의 자기보고형 질문지이다. 국내에서는 Lee와 Song(1991)이 번안하였으며, 내적 합치도 계수는 .98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90으로 나타났다.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STAXI-K)

Spielberger, Krasner와 Solomon(1988)의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를 Chon, Hahn, Lee와 Spielberger(1997)가 한국판으로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상태분노(10문항), 특성분노(10문항)와 분노표현의 세 가지 양상인 분노억제(8문항), 분노표출(8문항), 분노통제(8문항)의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성분노만을 사용하였으며, 내적 합치도 계수는 .97이었다.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척도(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Watson 등(1988)이 개발한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척도(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를 Lee, Kim과 Lee(2003)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긍정정서와 부정정서에 해당되는 형용사가 각 10개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어느 정도 경험했는지에 따라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많이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긍정정서가 .85, 부정정서가 .83이었다.

집단구분

자기애 성향자 중 자기애적 웅대성과 취약성 가운데 어느 하나를 두드러지게 더 많이 보고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자기애 성향이 강한 사람들 중에 웅대성이 취약성보다 더 두드러지는 사람과 취약성이 웅대성보다 더 두드러지는 사람들은 주로 경험하는 정서적 특성이 서로 다른지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애적 웅대성이 높은 자기애 집단과 자기애적 취약성이 높은 자기애 집단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이 보고한 PNI의 점수를 토대로 웅대성 점수와 취약성 점수의 차이를 계산하여 집단을 구분하였다. 구체적인 집단 구분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반적으로 자기애 특성이 강한 사람들을 선별하기 위해 참가자 중 PNI 전체 점수가 상위 33%이상(2.77점 이상)인 사람들을 PNI 고 집단으로 분류하였고, PNI 전체 점수가 하위 33%이하(2.29점 이하)인 사람들을 PNI 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PNI 고 집단 중 취약성 점수에서 웅대성 점수를 뺀 점수(취약성 평균 점수-웅대성 평균점수)가 상위 20%(.32이상)인 경우를 '취약성' 집단, 하위 20%(-.82이하)인 경우를 '웅대성' 집단이라 명명하였고, PNI 저 집단은 '통제' 집단이라 명명하였다.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20.52세(표준편차 1.99, 범위 17~29세)였으며, 집단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F(2, 146)=1.48, ns$. 남녀의 비율을 보면 남자와 여자는 각각 77명, 72명이었다. χ^2 검정 결과, 집단 간 성비 차이가 유의미했다, $\chi^2(2, N=149)=12.19, p<.01$. 웅대성 집단의 경우 남자 11명, 여자 11명으로 동일했고, 취약성 집단의 경우 남자가 4명, 여자가 18명으로 여자가 더 많았다. 통제 집단의

경우 남자 62명, 여자 43명으로 남자가 더 많았다.

통계적 분석

통계적 분석은 SPSS for Windows(version 18.0)를 사용하여 자료에 대한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집단 간 정서 점수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집단 간 성비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성별을 공변인으로 한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논의

병리적 자기에의 하위요인과 정서적 특성의 관계

연구 1에서 확인된 병리적 자기에의 두 하위요인인 응대성 및 취약성과 우울, 특질분노, 부정정서, 긍정정서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Table 6에 그 결과

를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PNI 총점은 우울($r=.28, p<.01$), 특질분노($r=.40, p<.01$), 부정정서($r=.36, p<.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긍정정서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r=.06, ns$). 병리적 자기에의 하위요인별로 정서적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응대성과 취약성은 특질분노와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r=.25, r=.41, p<.01$), 우울, 부정정서, 긍정정서와는 차별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응대성은 긍정정서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r=.32, p<.01$), 우울 및 부정정서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r=.03, r=.06, ns$). 취약성은 우울($r=.38, p<.01$), 부정정서($r=.47, p<.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 보였다. 응대성과 취약성간에 상당한 상관($r=.40, p<.01$)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기에의 하위요인과 정서적 특성이 맺고 있는 차별적인 상관관계는 흥미로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Table 6

Correlations of the PNI Grandiosity and Vulnerability with Depression, Trait Anger, Negative Affect, and Positive Affect

	PNI			Depression	Trait anger	Negative affect
	Total	Grandiosity	Vulnerability			
BDI (Depression)	.28**	.03	.38**			
STAXI-K (Trait anger)	.40**	.25**	.41**	.33**		
PANAS (Negative affect)	.36**	.06	.47**	.56**	.45**	
PANAS (Positive affect)	.06	.32**	-.13*	-.25**	.15*	-.01

Note. PNI = 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BDI = Beck Depression Inventory; STAXI-K =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PANAS =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 $p < .05$. ** $p < .01$.

병리적 자기애 하위집단의 구성

집단 구분이 적절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PNI의 총점, 웅대성 점수, 취약성 점수에 있어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집단 구분법으로 웅대성 집단과 취약성 집단이 잘 나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단 별로 다른 자기애 척도 점수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결과와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사후분석 검증 결과를 Table 7에 제시하였다.

일원변량분석 결과, PNI 총점은 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2, 146)=226.202$, $p<.001$. 사후 검증 결과, 웅대성 집단과 취약

성 집단은 모두 통제 집단 보다 PNI 총점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웅대성 집단과 취약성 집단은 유의미한 점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NI의 웅대성 점수에 있어서도 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F(2, 146)=76.131$, $p<.001$, 웅대성 집단, 취약성 집단, 통제 집단 순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PNI의 취약성 점수 또한 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F(2, 146)=171.858$, $p<.001$, 취약성 집단, 웅대성 집단, 통제 집단 순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기애의 웅대한 특성과 취약한 특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척도인 NPDS 점수의 경우에도, 세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F(2, 146)=26.653$, $p<.001$. 사후 검증 결과, 웅대성 집단과 취약성 집단은 모

Table 7
Variance Analysis Results of Narcissism Measures for Grandiosity Group, Vulnerability Group, and Control Group

	PNI High		PNI Low	F	Scheffé
	Grandiosity Group	Vulnerability Group	Control Group		
	(n=22)	(n=22)	(=105)		
	M(SD)	M(SD)	M(SD)		
PNI					
Total	3.01(.21)	3.25(.40)	1.91(.32)	226.202***	G=V>C
Grandiosity	3.76(.29)	2.88(.44)	2.29(.57)	76.131***	G>V>C
Vulnerability	2.46(.30)	3.53(.43)	1.62(.48)	171.858***	V>G>C
NPDS	72.14(14.05)	76.29(12.49)	56.48(13.41)	26.653***	G=V>C
NPI	26.23(5.61)	16.05(7.14)	14.61(6.88)	26.990***	G>V=C
HSNS	27.64(5.86)	31.50(5.36)	24.14(5.64)	16.903***	V>G=C

Note. PNI = 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NPDS =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 HSNS = Hypersensitive Narcissistic Scale; NPI =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G = Grandiosity Group; V = Vulnerability Group; C = Control Group.

*** $p < .001$.

두 통제 집단보다 NPDS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웅대성 집단과 취약성 집단의 점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자기애의 웅대한 특성을 주로 측정하는 NPI 점수도 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F(2, 146) = 26.990, p < .001$, 웅대성 집단이 취약성 집단과 통제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자기애의 취약한 특성을 주로 측정하는 HSNS 점수도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냈으며, $F(2, 146) = 16.903, p < .001$, 취약성 집단이 웅대성 집단과 통제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애의 집단구분이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병리적 자기애 하위집단에 따른 정서적 특성

의 차이

집단 간 정서적 특성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성별을 공변량으로 하는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여 BDI의 우울, STAXI-K의 특질분노, PANAS의 부정정서 및 긍정정서 점수를 비교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Table 8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BDI 점수의 경우,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F(2, 146) = 14.10, p < .001$. 대비 검증 결과, 취약성 집단의 우울 점수는 웅대성 집단과 통제 집단의 우울 점수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TAXI-K의 특질분노 점수의 경우,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F(2, 146) = 9.92,$

Table 8
Variance Analysis Results of Emotional Characteristics for Grandiosity Group, Vulnerability Group, and Control Group

	PNI High		PNI Low	F	Contrast Test
	Grandiosity Group	Vulnerability Group	Control Group		
	(n=22)	(n=22)	(n=105)		
	M(SD)	M(SD)	M(SD)		
BDI (Depression)	5.46(1.24)	13.05(1.32)	5.47(.58)	14.10***	V>G=C
STAXI-K (Trait-anger)	20.68(1.09)	22.94(1.13)	17.78(.01)	9.92***	G=V>C
PANAS (Negative affect)	19.45(1.35)	27.40(1.40)	19.91(.63)	12.44***	V>G=C
PANAS (Positive affect)	33.98(1.40)	26.99(1.45)	29.27(.65)	6.71**	G>V=C

Note. PNI = 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BDI = Beck Depression Inventory; STAXI-K =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PANAS =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G = Grandiosity Group; V = Vulnerability Group; C = Control Group.

** $p < .01$. *** $p < .001$.

$p < .001$, 취약성 집단과 웅대성 집단의 특질분노 점수는 통제 집단의 특질분노 점수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PANAS의 부정정서 점수와 긍정정서 점수 또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F(2, 146) = 12.44, p < .001$; $F(2, 146) = 6.71, p < .01$. 대비 검증 결과, 부정정서 점수에 있어서, 취약성 집단은 웅대성 집단과 통제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반면 긍정정서 점수의 경우에는, 웅대성 집단이 취약성 집단과 통제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애적 웅대성은 긍정정서와 관련 있고, 자기애적 취약성은 우울, 부정정서와 관련 있으며, 특질분노는 자기애적 웅대성과 취약성 모두와 관련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자기애적 웅대성과 취약성의 상대적인 수준에 따라 쉽게 경험하는 정서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지지해준다.

종합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병리적 자기애 성향자의 웅대성과 취약성에 따른 정서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먼저 자기애적 웅대성과 취약성을 모두 측정하는 도구를 마련하였고, 임상적 관찰 및 이론에서 제기되어 온 자기애자들의 정서적 특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I에서는 병리적 자기애의 웅대성과 취약성을 모두 측정하는 병리적 자기애 척도(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PNI)를 변안하고 타당화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PNI는 변동하는 자존감, 웅대한 환상, 평가절하, 착취, 특권분노, 자기희생-자기고양의 6요인으로 구성되

어 있었다. 이는 원척도의 요인구조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원 척도의 요인은 본 연구에서 확인한 6요인 외에 자기 숨김이라는 요인을 포함해 총 7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PNI는 본 연구에서 확인한 6요인이 적합하며 이 요인들은 웅대성과 취약성이라는 두 상위 요인에 분류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내적합치도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PNI는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자기애 척도들인 자기애적 성격 척도(NPI), 과민성 자기애 척도(HSNS), 자기애성 성격장애 척도(NPDS)와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특히 PNI의 웅대성은 NPI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PNI의 취약성은 HSNS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PNI의 웅대성과 취약성 모두 NPDS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자기애와 관련된다고 여겨지는 여러 심리적 특성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PNI 총점은 수치심, 신경증, 공격성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PNI의 하위요인 중 웅대성은 외향성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PNI의 취약성은 수치심, 신경증, 공격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자존감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비교적 정상적 자기애를 측정하는 NPI와 여러 심리적 특성들과의 상관 분석 결과, NPI는 수치심, 신경증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외향성, 자존감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PNI는 NPI와는 다르게 부적응적인 심리상태 및 행동과 관련 깊은 병리적 자기애 특성을 측정하는 척도임을 보여준다.

연구 II에서는 PNI의 웅대성과 취약성에 따른 정서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전체 피험자를 대상으로 자기애적 웅대성 및 취약성과 각 정서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웅대성은 분노, 긍정정서와는 정적인 상관관을 보였으며, 우울, 부정정서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취약성은 우울, 분노, 부정정서와는 강한 정적인 상관관을 나타냈으며 긍정정서와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에 더하여 자기에 성향이 강한 사람들만을 선택하여 그 중 상대적으로 웅대성이 강한 사람들과 취약성이 강한 사람들을 구분했을 때 집단 간에 정서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집단을 구분하고 집단 간 자기에 전체점수, 웅대성 점수와 취약성 점수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한 결과, 웅대성 집단과 취약성 집단은 PNI 총점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웅대성 점수는 웅대성 집단이 취약성 집단보다 높은 반면, 취약성 점수는 취약성 집단이 웅대성 집단보다 높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집단구분법으로 자기에적 웅대성 집단과 취약성 집단이 적절하게 나뉘었음을 보여준다. 집단 간 정서적 특성의 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긍정정서의 점수는 자기에적 웅대성 집단이 자기에적 취약성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 우울과 부정정서의 점수는 자기에적 취약성 집단이 웅대성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특질분노 점수의 경우 두 집단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에적 웅대성은 긍정정서와 강하게 관련 있고, 자기에적 취약성은 우울, 부정정서와 강하게 관련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특질분노는 자기에적 웅대성 및 취약성 모두와 관련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자기에적 성향이 강할 때 자기에적 웅대성과 취약성 중 어느 것 하나가 상대적으로 더 우세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자기에적 웅대성이 우세한 사람은 긍정정서, 분노를

경험하기 쉬운 반면, 자기에적 취약성이 우세한 사람은 우울, 부정정서, 분노를 잘 느끼기 쉽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자기에적 웅대성과 취약성을 고루 측정하는 도구를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자기에를 측정하는 기존의 도구들은 대부분 자기에의 부분적인 측면만을 측정한다. 자기에의 여러 속성들을 포괄하는 도구의 부재는 자기에의 활발한 연구를 어렵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자기에의 다차원적인 속성을 모두 포함하며 크게 웅대성과 취약성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는 자기에 척도를 마련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자기에 연구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자기에적 웅대성과 취약성을 구별하여 살펴본 것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기에의 취약한 특징은 치료 효용성을 높이며, 자기에의 웅대한 특징은 치료에 협조적이지 않는 태도와 관련된다고 보고된다(Pincus et al., 2009). 또한 자기에 성향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대인관계 문제에 있어서 자기에적 취약성은 사회적 회피, 냉담한 태도, 착취적 태도로 인한 문제와 상관이 있는 반면, 웅대성은 보복, 지배적 태도 등으로 인한 문제와 상관이 있다고 보고된다(Pincus et al., 2009). 이러한 자기에의 웅대성과 취약성의 상이한 특징을 인식하는 것은 임상 현장에서 자기에성 환자를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PNI의 자기에적 웅대성과 취약성은 두 개의 상위 요인으로서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면서도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이 두 요인의 변별타당도를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 보인다. 본 연구

에서는 자기애의 웅대성과 취약성의 상대적인 수준의 차이에 따라 정서적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웅대성은 긍정정서와 관련이 높은 반면, 취약성은 우울, 부정정서와 관련이 높다는 연구결과는 임상적 관찰 및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Miller et al., 2010; Robinson & Dupont, 1992; Tritt et al., 2010; Waston et al., 1987). 또한 웅대성과 취약성 모두 분노와 상관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 또한 두 특징이 자기와 타인에 대한 적대감 및 공격성과 관련된다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Wright et al., 2010). 이러한 경험적 연구결과는 자기애의 웅대성과 취약성은 모두 임상적으로 중요한 자기애적 특성이며 두 특성을 구별하여 인식하는 것이 필요함을 뜻한다. 특히 DSM-5에는 반영되어 있지는 않지만 임상장면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는 자기애의 취약한 특성까지도 인식하고 연구하는 것은 연구자와 임상가들이 자기애를 이해하고 진단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앞으로의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모두 특정 대학의 대학생들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일반화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일반인과 자기애성 성격장애 환자를 포함한 보다 다양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집단구분법은 확립된 방법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들 가운데 웅대성과 취약성 중 어느 한 요인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경우가 있을 것을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자기애 전체점수가 높은 사람들 중 웅대성과 취약성의 차이점수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였고, 집단 간 차이점과 유사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집단구분법은 확립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신중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웅대성과 취약성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점수나 기준이 마련된다면 좋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한 연구이므로, 이후 실험 등의 다양한 방법론을 통한 자기애자들의 정서반응을 살펴보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애자들의 경우 자기보고와 관찰자 평정이 불일치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Robbins & Dupont, 1992). 이는 자기애에 대한 자기보고 연구의 한계를 보여주며, 자기보고 연구 외의 관찰자 평정이나 생리적 지표의 사용 등과 같은 다른 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자기애 성향자들은 웅대한 자기상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신의 긍정적인 것들만을 보고하며 긍정적인 착각을 하기 쉽다고 알려져 있다. Bushman과 Baumeister(1998)는 자기애 성향이 강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웅대한 표상을 가지고 있어서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과민하며 이에 대해 분노와 보복 행동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자기애적 손상이 될 만한 자극이 없는 중립적인 상황에서 자기보고 질문지에 스스로 보고하는 내용만으로는 자기애 성향자들이 독특하게 보이는 강렬한 정서적 특성을 충분히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자기애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자기애적 손상을 유발시키는 부정적 피드백 등이 주어지는 실험 상황을 설계하여 정서적 특성을 살펴본다면 보다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향후 자기애 성향자들이 사용하는 정서조절 혹은 대처 전략에 대해서도 탐색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애적

위협이 되는 일을 경험한 이후 사용하는 자기 조절 전략은 자기애적 응대성과 취약성의 상대적인 수준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자기조절 전략의 차이에 따라 정서경험 이후의 행동 또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애적 응대성과 취약성의 상대적인 수준에 따라 자기에 성향자들이 경험하는 정서조절과 자존감 조절전략 또는 정서경험 이후 대처전략이나 행동 등에 대해 연구한다면 자기에 성향자들의 정서적 특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를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Akhtar, S. (2003). *New clinical realms*. London: Jason Aronson Inc.
- Akhtar, S., & Thompson,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 12-20.
- Beck, A. T., Ward, C. H., Mendelson, M., Mock, J., & Erbaugh, J. (1961). An inventory for measuring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 561-571.
- Besser, A., & Zeigler-Hill, V. (2010). The influence of pathological narcissism on emotional and motivational response the negative events: The roles of visibility and concern about humili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4, 520-534.
- Biddle, B. J., & Marlin, M. M. (1987). Causality, confirmation, credulity,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hild Development*, 58, 4-17.
- Bollen, K. A. (1989). *Structural equation with latent variables*. Oxford: John Wiley & Sons.
- Brown, R. P., Budzek, K., & Tamborski, M. (2009). On the meaning and measure of narcissis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5, 951-964.
- Bushman, B. J., & Baumeister, R. F. (1998). Threatened egotism narcissism, self-esteem, and direct and displaced aggression: Does self-love or self-hate lead to vio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219-229.
- Buss, A.,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452-459.
- Cain, N. M., Pincus, A. L., & Ansell, E. B. (2008). Narcissism at the crossroads: Phenotypic description of pathological narcissism across clinical theory, social/personality psychology, and psychiatric diagno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8, 638-656.
- Carroll, L., Hoenigmann-Stovall, N., & Whitehead, G. I. (1996). The interpersonal impact of narcissism: A comparative study of entitlement and self-absorption factors. *Journal of Social Behavior & Personality*, 11, 601-613.
- Chon, K. K., Hahn, D. W., Lee, C. H., & Spielberger, C. D. (1997). Korean adaptation of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Anger and blood pressur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 60-78.
- Chung, N. W. (2001). A validation study of the hypersensitivity narcissism scale(HSN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3, 196-213.
- Corruble, E., Ginestet, D., & Guelfi, J. D. (1996).

- Comorbidity of personality disorders and unipolar major depression: A review.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37, 157-170.
- Cortina, J. M. (2002). Big things have small beginnings: An assortment of "minor" methodological misunderstandings. *Journal of Management*, 28, 339-362.
- Costello, A. B., & Osborne, J. W. (2005). Best practices i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ur recommendations for getting the most from your analysis. *Practical Assessment, Research & Evaluation*, 10, 1-9.
- Dickinson, K. A., & Pincus, A. L. (2003). Interpersonal analysis of grandiose and vulnerable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7, 188-207.
- Ellison, W. D., Levy, K. N., Cain, N. M., Ansell, E. B., & Pincus, A. L. (2013). The impact of pathological narcissism on psychotherapy utilization, initial symptom severity, and early-treatment symptom change: A naturalistic investig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5, 291-300.
- Emmons, R. A. (1984). Factor analysis and construct validity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 291-300.
- Emmons, R. A. (1987). Narcissism: Theory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1-17.
- Gabbard, G. O. (1989). Two subtype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53, 527-532.
- Gioiella, P. (1979). The relationship of relative shame/guilt proneness to th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under no shame and shame arousal.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0, 2432B.
- Goldberg, L. R. (1999). A-broad-bandwidth, public-domain, personality inventory measuring the lower-level factors several five-factor models. *Personality Psychology in Europe*, 7, 7-28.
- Han, S. J. (1999). *Overt and covert self-relevant cognition of narcissis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Hendin, H. M., & Cheek, J. M. (1997). Assessing hypersensitive narcissism: A reexamination of Murray's narcissism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 588-599.
- Hickman, S. E., Watson, P. J., & Morris, R. J. (1996). Optimism, pessimism, and the complexity of narciss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 521-525.
- Hoblitzelle, W. (1987). Differentiating and measuring shame and guilt: The relation between shame and depression. In H. Lewis (Ed.). *The role of shame and symptom formation* (pp. 207-236). Hillsdale, NJ: Erlbaum.
- Hong, S. H. (2000). The criteria of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 161-178.
- Horowitz, M. (2009). Clinical phenomenology of narcissistic pathology. *Psychiatric Annals*, 39, 124-128.
- Hwang, S. T. (1995). *Development of diagnostic criteria for personality disord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Jackson, L. A., Ervin, K. S., & Hodge, C. N. (1992). Narcissism and body imag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6*, 357-370.
- Kaiser, H. (1974). An index of factorial simplicity. *Psychometrika, 39*, 32-36.
- Kernberg, O. F.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Jason Aronson.
- Kernberg, O. F. (2009). Clinical phenomenology of narcissistic pathology. *Psychiatric Annals, 39*, 124-128.
- Kim, J. S. (2008). *Effects of success-failure feedback on negative affects, self-esteem, and ability attribution of overt and covert narcissistic tendenc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Korea.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Kohut, H., & Wolf, E. S. (1978). The disorders of the self and their treatment: An outlin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59*, 413-425.
- Lee, F. (1997). When the going gets tough, do the tough ask for help? Help seeking and power motivation in organization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72*, 336 - 363.
- Lee, F. (2002). The social costs of seeking help.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38*, 17-35.
- Lee, H. H., Kim, E. J., & Lee, M. K. (2003).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2*, 935-946.
- Lee, H. J., & Won, H. T. (1995). Self-concepts and paranoid tendency. *Psychological Science, 4*, 15-29.
- Lee, J. D., Seo, S. G., & Lee, H. J. (2007). Self-concept clarity and negative emotion in young adults with covert, overt narcissistic featur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6*, 463-477.
- Lee, Y. H., & Song, J. Y. (1991). A study of the reliability and the validity of the BDI, SDS, MMPI-D Sca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0*, 98-113.
- Lukowitsky, M. R., Roberts N. R., Lehner, A. N., Pincus, A. L., & Conroy, D. E. (2007). *Differentiating forms of narcissism by achievement-related motives and interpersonal problem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Interpersonal Theory and Research, Madison, WI.
- Markus, H. R., Mullaney, P. R., & Kitayama, S. (1997). Selfways: Diversity in modes of cultural participation. In U. Neisser & D. Jopling (Eds.). *The conceptual self in context* (pp. 13-6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Cann, J. T., & Biaggio, M. K. (1989). Narcissistic personality features and self-reported anger. *Psychological Reports, 64*, 55-58.
- Miller, J. D., Widiger, T. A., & Campbell, W. K. (2010).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nd the DSM-V.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9*, 640-649.
- Murray, H. A. (1938). *Explorations in persona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Nam, K. S. (2008). *Coping strategy effects on*

- psychological symptoms associated with shame- and guilt-inducing experienc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Pincus, A. L., Ansell, E. B., Piementel, C. A., Cain, N. M., Wright, A. G., & Levy, K. N. (2009). Initial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the 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21*, 365-379.
- Pincus, A. L., & Lukowitsky, M. R. (2010). Pathological narcissism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6*, 421-446.
- Raskin, R., & Hall, C. S. (1979). A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Reports, 45*, 590.
- Raskin, R., & Terry, H. (1988). 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890-902.
- Rathvon, N., & Holmstrom, R. W. (1996). An MMPI-2 portrait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 1-19.
- Rhodewalt, F., & Morf, C. C. (1995). Self and interpersonal correlate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 review and new finding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9*, 1-23.
- Rhodewalt, F., & Morf, C. C. (1998). On self-aggrandizement and anger: A temporal analysis of narcissism and affective reactions to success and fail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672-685.
- Robbins, S. B., & Dupont, P. (1992). Narcissistic needs of the self and perceptions of interpersonal behavi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 221-231.
- Ronningstam, E. (2005).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 review. In M. Maj, H. S. Akiskal, J. E. Mezzich, & A. Okasha (Eds.). *Evidence and experience in psychiatry: Personality disorders* (pp.277-327). New York: Wiley.
- Ronningstam, E. (2009).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Facing DSM-V. *Psychiatric Annals, 39*, 111-121.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child*.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ss, E., Shedler, J., Bradley, R., & Western, D. (2008). Refining the construct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Diagnostic criteria and subtype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5*, 1473-1481.
- Saucier, G., & Goldberg. L. R. (1996a). Evidence for the Big Five in analyses of familiar English personality adjective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0*, 61-77.
- Sedikides, C., Rudich, E. A., Gregg, A. P., Kumashiro, M., & Rusbult, C. (2004). Are normal narcissists psychologically healthy?: Self-esteem matt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 400-416.
- Seo, S. G., & Kwon, S. M. (2002). Relations of self-esteem and narcissism with aggressivenes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 809-826.
- Smalley, R. L. & Stake, J. E. (1996). Evaluating sources of ego-threatening feedback: Self-esteem and narcissism effects. *Journal of*

- Research in Personality*, 30, 483-495.
- Spielberger, C. D., Krasner, S. S., & Solomon, E. P. (199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 P. Janisse (Ed.). *Health psychology: Individual differences and stress* (pp. 89-108). New York: Springer Verlag.
- Stuck, T. S., & Sporer, S. L. (2002). When a grandiose self-image is threatened: Narcissism and self-concept clarity as predictors of negative emotions and aggression following ego-threat. *Journal of Personality*, 70, 509-532.
- Taylor, S. E., Sherman, D. K., & Kim, H. S. (2005). Culture and social support: Who seeks it and w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 354-362.
- Tritt, S. M., Ryder, A. G., Ring, A. J., & Pincus, A. L. (2010). Pathological narcissism and the depressive temperament.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22, 280-284.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9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063-1070.
- Watson, P. J., Little, T., Sawrie, S. M., & Biderman, M. D. (1992). Measure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Complexity of relationships with self-esteem and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64, 434-449.
- Watson, P. J., Tylor, D., & Morris, R. J. (1987). Narcissism, sex roles, and self-functioning. *Sex Roles*, 16, 335-350.
- Watson, P. J., Varnell, S. P., & Morris, R. J. (1999-2000). Self-reported narcissism and perfectionism: An ego-psychological perspective and the continuum hypothesis.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19, 59-69.
-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590-597.
- Wink, P. (1992). Three narcissism scales for the California Q-se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8, 51-66.
- Won, J. S. (2006). *The effects of covert narcissistic personality tendency on depression : The mediational role of the fear of negative appraisal, subjective frustration experience, and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Wright, A. G. C., Lukowitsky, M. R., Pincus, A. L., & Conroy, D. E. (2010). The higher-order factor structure and gender invariance of the 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Assessment*, 17, 467-483.
- Yoo, T. Y., Lee, K. B., & Ashton, M. C. (2004).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HEXACO personality inventory.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8, 61-75.
- Zeigler-Hill, V., Green, B. A., Arnau, R. C., Sisemore, T. B., & Meyers, E. M. (2011). Trouble ahead, trouble behind: Narcissism and early maladaptive schemas.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42, 96-103.

Received August 4, 2015

Revised December 23, 2015

Accepted January 7, 2016

병리적 자기에 성향자의 응대성과 취약성에 따른 정서적 특성

양진원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권석만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자기에의 응대성과 취약성이라는 두 요인을 모두 측정하는 척도를 마련하고, 두 요인에 따른 정서적 특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 I에서는 병리적 자기에 척도(PNI)를 번안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연구 II에서는 자기에자들의 응대성과 취약성에 따른 정서적 특성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살펴보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학생 327명을 대상으로 PNI의 응대성 및 취약성과 정서적 특성들 간 상관 분석을 한 결과, 응대성은 긍정 정서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우울, 부정정서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취약성은 우울, 부정정서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긍정정서와는 부적의 상관을 보였다. 응대성과 취약성 모두 특질분노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자기에 성향이 높은 사람들 중 상대적으로 응대성이 높은 집단과 취약성이 높은 집단을 분류하여, 정서적 특성이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응대성 집단은 취약성 집단 보다 긍정정서의 점수가 높았고, 취약성 집단은 응대성 집단보다 부정정서, 우울의 점수가 높았다. 두 집단 간 특질 분노의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에 성향자들이 지니는 응대성과 취약성의 상대적인 수준 차이에 따라 정서적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병리적 자기에, 응대성, 취약성, PNI, 정서